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반지윤** · 오인수***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지니는 교육·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양육태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공격성, 매개효과, 다중집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insoo@ewha.ac.kr

I.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범국가적 대응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0년 2월 기준 총 2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1차 일부 개정인 2012년 3월에는 학교폭력 정의에서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범국가적으로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최두진 외(2018)의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6.8% 증가했으며, 4,662명의 학생 표본 중 29.5%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은 청소년 발달의 위험요인으로 발달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Nixon, 2014), 사이버폭력이 지니는 익명성, 비대면성, 빠른 파급효과, 편리한 접근성, 낮은 시·공간적 제약 등 때문에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잠재적 위험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오인수, 2011). 2011년 언론의 이슈로 떠오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도 사이버 괴롭힘으로 촉발된 집단 따돌림이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극단적 사건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오프라인 전이를 탐색하였는데, 전체의 26.3%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7.8%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은 교육학이나 법학, 범죄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유사 용어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불링, 사이버왕따,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시한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에 의하면, “(19세 미만의)청소년이 학교 내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헐박 등의 내용을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이용하여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법률적 용어

라기보다는 인터넷 일반화로 인한 역기능 현상으로 보는 관점인 안성진 외(2015)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모두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확인되고 있다(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최두진 외, 2018; Hinduja & Patchin, 2015). 특히,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 90%가 사이버폭력을 목격했고, 그 중 약 34%의 청소년은 한번이상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15). 김신아, 방은혜와 한윤선(2017)의 메타분석은 사이버폭력 연구의 학교급별 비율을 확인하였는데, 중학생이 44.19%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13.95%, 고등학생은 4.65%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중학생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보아, 최근 중학생의 사이버폭력은 핵심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차원적인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인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내적 요인은 성격과 심리, 가치관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내적 요인으로 공격성에 주목하였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후원자이지만, 김경호와 차은진(2014)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적·통제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사이버 비행율을 높인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부모 관련 요인은 과보호(송예름, 김영희, 2018), 부정적 부모-자녀 의사소통(강경옥, 조춘범, 김정화, 2018), 학대(고수연, 배성만, 2018)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지혜와 강민주(2019)는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적 부모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동시에 다양한 생활의 영역에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 맺게 되는 최초의 대인관계이며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사회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 즉,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모델이자 훈육자의 역할을 하며 자녀의 발달과업 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정서적 성장발달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양육태도를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부적응적 문제를 가정 및 학교에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지윤, 강현아, 2017; Gerard, Krishnakumar & Buehler, 2006; Holland, Malmberg & Gimpel Peacock, 2017).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거부(rejection), 강요(coercion), 비일관성(chaos)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사이버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통적 괴롭힘에서도 유의미한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수경과 오인수(2012)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가해경험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중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충동성, 공격성으로 확인되었고, 전통적 괴롭힘 가해경험에서도 공격성, 죄책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두진 외(2018)에서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walski, Limber와 McCord (2019)의 메타분석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위험요인으로 온라인 탈억제, 전통적 괴롭힘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때, 낮은 공감능력, 우울, 외현화 행동, 오프라인 공격성 등이 논의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염서정과 제경자(2018)의 연구는 일반긴장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보다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다. 송예름과 김영희(2018)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의 지지하고, 애정적이며, 성장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감독과 관심을 줄 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지연과 박동필(2015)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를 탐색하였는데, 개별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자녀는 부모-자녀 간 갈등, 긴

장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 우울감, 화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가해행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영과 김현수(2018)에서는 청소년의 학대 경험과 사이버폭력 경향성 간의 관계를 전위(轉位) 공격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형과 이상훈(2015)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3차년도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청소년의 공격성 초기값은 부모의 학대 초기값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초기값 및 변화율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 초기값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 초기값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공격성처럼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더 취약하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간접적으로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경로에 있어 한 가지 고려할 변인은 바로 '성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성차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생 연령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귀옥, 이미리, 2013).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사회통제이론으로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social-bond)가 높으면 비행 행동이 감소된다고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가족 간 유대관계와 관련이 있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비행에서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Agnew, 2009). 특히, Agnew의 주장에 의하면 학대라는 긴장이 분노 또는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데 이를 사이버폭력과 같은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한다(Agnew, 2006). 또한, 최두진 외(2018)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응답률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다. 류석상 외(2016)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익명성, 사이버 자신감 및 자기표현, 폭력적 대중매체 노출 정도가 더 높고 사이버 윤리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한편, 중학생 성별에 따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 경로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방향과 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아직 이 변수들 사이의 성별 차이에 관한 경험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

성,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8에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종단자료로써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은 2018년(1차)부터 2024년(7차)까지 17개 시도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YPS 2018 1차년도(2018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인 청소년 2,590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으로 구성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이며, 종속변수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매개변수로 공격성을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negative parenting attitude)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중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거부(rejection), 강요(coercion), 비일관성(chaos) 하위영역을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강요적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양육태도의 각 하위척도와 문항 간의 Cronbach's α 는 거부적 양육태도 .791, 강요적 양육태도 .770, 비일관성 양육태도 .805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cyberbullying perpetration)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의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태 조사 문항 중 사이버비행 가해경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 엽사,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해 적이 있다’,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 1점, ‘1년에 1~2번’ 2점, ‘한 달에 1번’ 3점, ‘한 달에 2~3번’ 4점, ‘1주일에 1번’ 5점, ‘1주일에 여러 번’ 6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

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1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추출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를 기준으로 사이버폭력1, 사이버폭력2, 사이버폭력3 차례대로 문항을 배치하여 3개의 측정변수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극단적으로 정적인 편포를 이루고 있어서 정규성의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곱근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매개변수: 공격성(aggression)

조봉환과 임정희(2003)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격성 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5.0을 활용하였으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16).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분석은 Bollen (1989)의 2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뒤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고,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VE값과 CR값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 검증으로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 경로의 차이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은 분석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법인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FI,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정규성 확인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검증 기준(Kline, 2016; West, Finch & Curran, 1995)을 따르고 있어 본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i>N</i>	<i>Mean</i>	<i>SD</i>	<i>Skewness</i>	<i>Kurtosis</i>
독립변수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2,541	7.07	2.49	.799	.815
	강요적 부모양육태도	2,541	8.72	2.61	.206	-.180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	2,541	8.19	2.56	.261	-.058
매개변수	공격성	2,541	11.51	3.53	.106	-.536
종속변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541	16.25	2.48	.307	-.887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공격성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주요 변수 간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는 절대값 .106~.571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A	B	C	D	E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1				
강요적 부모양육태도(B)	.484***	1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C)	.480***	.571***	1		
공격성(D)	.344***	.310***	.413***	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E)	.106***	.135***	.154***	.282***	1

*** $p < .001$, ** $p < .01$, * $p < .05$

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의 추정 가능성 및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측정하였다(배병렬, 2017; Kline, 2016).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로 구성된 공격성, 사이버폭력 가해경험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219.438(df=19, p=.000)$, RMSEA=.064(Lo .057, Hi .072), IFI=.967, TLI=.951, CFI=.967로 나타났으며, 모두 판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7).

측정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및 표준화 계수,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567~.788로 모든 요인부하량이 .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측정모

형의 잠재변수 간 공분산 계수와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주요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itical Ratio
		B	β		
공격성	공격성1	1.000	.732		
	공격성2	.929	.698***	.029	32.137
	공격성3	.961	.731***	.029	33.523
	공격성4	1.008	.788***	.030	35.718
	공격성5	.902	.638***	.031	29.476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1	1.000	.567		
	사이버폭력2	.437	.733***	.024	18.485
	사이버폭력3	.316	.594***	.017	18.945
주요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Correlations	B	S.E.	critical ratio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333	.064	.006	11.014***

*** $p < .001$, ** $p < .01$, * $p < .05$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chi^2=301.901(df=37, p=.000)$, RMSEA=.053(Lo .048, Hi .059), IFI=.969, TLI=.954, CFI=.969로 나타나, 필요한 요구 모형적합도를 충족시켰다(배병렬, 2017; Kline, 2016).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 그림 1과 같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거부적($\beta=.168, p<.001$) · 강요적($\beta=.070, p<.01$) · 비일관성($\beta=.307, p<.001$)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eta=.341, p<.001$). 즉, 공격성이 높은 중학생은 자신이 느끼는 내재적 갈등 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른 변수와 비교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Estimate		S.E.	Critical Ratio
	B	β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038	.168***	.005	7.136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015	.070**	.005	2.795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069	.307***	.006	12.076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01	.341***	.019	10.554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5	-.038	.004	-1.341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23	.004	.774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1	-.004	.004	-.140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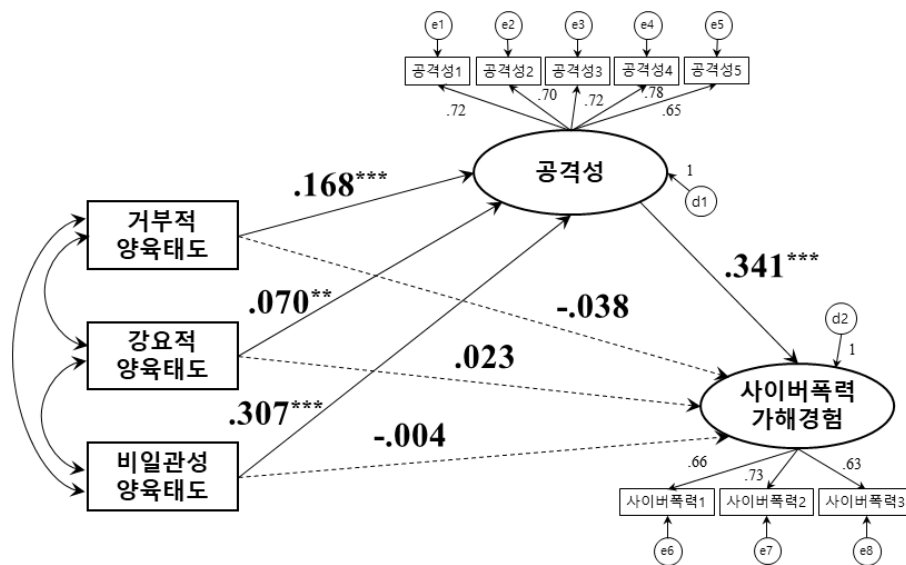


그림 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고,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요약하였다.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완전매개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완전매개 경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분해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간접 신뢰구간
	B	β	B	β	B	β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19	-.005	-.038	.008	.057	.037~.078***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6	.047	.003	.023	.003	.024	.006~.043**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13	.101	-.001	-.004	.014	.105	.081~.133***

*** $p < .001$, ** $p < .01$

4.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의 잠재변수 간 경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저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 검증과 측정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집단에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n=1,375$)은 $\chi^2=118.127$, $df=19$, $IFI=.969$, $TLI=.955$, $CFI=.969$, $RMSEA=.062$ 을 나타내며, 여학생($n=1,166$)은 $\chi^2=120.032$, $df=19$, $IFI=.965$, $TLI=.948$, $CFI=.965$, $RMSEA=.068$ 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은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다중집단분석에서 만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저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λ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0.722이며, df 차이는 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공분산 제약모형($\emptyset$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1.452이며, df 차이는 11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요인부하량 · 공분산 제약모형(Λ , $\emptyset$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6.401이며, df 차이는 16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요인부하량 · 공분산 · 측정오차 분산 제약모형(Λ , $\emptyset$, Θ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09.809이며, df 차이는 17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측정동일성을 유지하는 결과임에 따라, 부분적으로 측정동일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2단계까지만 측정동일성이 검증되면 측정동일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허준, 2015) 이후 단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잠재변수 간 인과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모든 구조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에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공격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가 남녀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Unconstrained)과 주요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각 집단별로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Structural weights)을 설정하여 χ^2 값의 차이를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제약 모형은 $\chi^2=339.984$, $df=74$, $p=.000$, $TLI=.954$, $CFI=.969$, $RMSEA=.038$ 을 나타내며, 제약 모형은 $\chi^2=448.617$, $df=95$, $p=.000$, $TLI=.952$, $CFI=.959$, $RMSEA=.038$ 로 무제약 모형이 제약모형에 비해서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χ^2 통계량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 값의 차이는 108.633, 자유도의 차이는 21로 $p < .001$ 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구조동일성 가정은 기각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에서 두 모형 간에 χ^2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경로계수가 두 모형 간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요 경로가 남녀 집단 간에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남녀 집단 간 경로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 모수치 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남녀 모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09$, $\beta=.254$, $p<.001$), 이 경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ritical ratio=3.593, $p<.001$).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69$, $p<.05$), 이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001, $p=n.s$).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37$, $\beta=.262$, $p<.001$), 이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937, $p=n.s$).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남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각각의 경로에 대한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40$, $\beta=.345$, $p<.001$), 이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163, $p=n.s$).

표 6

남녀 집단별 구조동일성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및 집단 간 경로 차이

집단 경로	남학생			여학생			Critical Ratio
	B	β	S.E.	B	β	S.E.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024***	.109	.007	.063***	.254	.009	3.593***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015*	.069	.007	.015	.066	.008	-.001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072***	.337	.007	.061***	.262	.009	-.937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7	-.053	.005	-.004	-.027	.006	.378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24	.005	.003	.023	.006	-.017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2	-.014	.006	.002	.012	.006	.410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07***	.340	.027	.201***	.345	.027	-.163

*** $p<.001$, ** $p<.05$, * $p<.01$

이상의 결과를 그림 2, 그림 3에 정리하였다. 우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인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집단 간 경로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 정서적·심리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구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2배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보다 더 높게 공격성을 높인다는 것으로서, 여학생이 처해 있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낸다.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했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학생 집단은 공격성이 부모의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을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높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도 공격성이 부모의 거부적·비일관성 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각각 완전매개하였다. 하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공격성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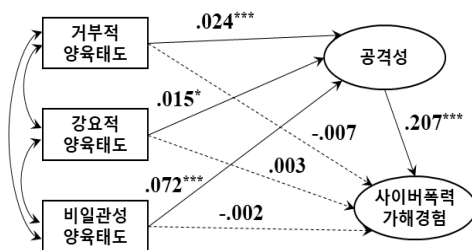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 구조모형(B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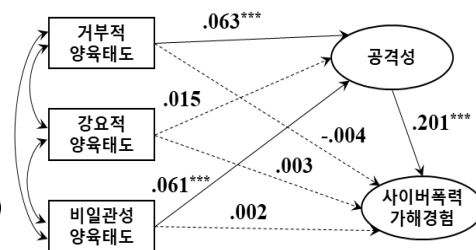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 구조모형(B값)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첫째,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경로를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성의 정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밀관성·거부적·강요적으로 양육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이들이 느끼는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는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가 관찰하는 자녀의 공격적 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적·상담적 개입이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지·정서·행동 이론에 의하면, 인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부적응적인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박경애, 2018).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인지적 변화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행동을 조절 및 통제 가능한 개인 심리적 요인을 인지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폭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공격성을 측정하고 이를 중재하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어야 하며, 공격성 완화를 위해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 훈련(진다슬, 손정락, 2013), 자기통제 훈련(현문정, 한영선, 2015), 공감 훈련(성은희, 안혜원, 윤명

회, 2015; 이은희, 이효자, 2014), 감정 코칭(주연수, 2015),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박남이, 김춘경, 2013), 인터넷 기반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오서진, 장현아, 최지윤, 신민섭, 2013) 등 적극적 인지적 변화를 실행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들의 폭력이 감소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존재한다. 김은정, 유형근과 남순임(2015)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대처방법 알기, 충동성·공격성 조절, 사이버 매체 과몰입 조정, 부모와의 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감 증진 등의 복합적 구조화를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둘째,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비일관성 부모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Direct Effect $\beta = -.004$, Indirect Effect $\beta = .105$, $p < .00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Direct Effect $\beta = -.005$, Indirect Effect $\beta = .057$, $p < .001$)와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Direct Effect $\beta = .023$, Indirect Effect $\beta = .024$, $p <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매개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경로를 통해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을 공격성이 부분매개했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지연, 박동필, 2015). 또한, 학대 경험이 높은 경우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경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위(轉位) 공격성을 높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경향성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나타난다는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최영, 김현수, 2018). 특히, 부모의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있어서 공격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과정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분노, 우울,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유발요인이 되어 비행 또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유석봉, 이완희, 2018). 즉,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부터 야기된 부모-자녀 간 갈등이나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자녀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분노, 화, 우울, 사회적 위축, 자살 생각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과급효과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통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를 줄이는 방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송진영, 2016; 조준화, 2017).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담을 통해 부모-자녀 간 애착을 증진한 연구에서는 사후검사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경험이 감소했다(조준화, 2017).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회피나 공격 등 부적절한 대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김숙향(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또래와의 애착 정도도 낮았으며,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애착이 높고,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는 부모의 긍정적 육아 기술, 부모의 긍정적 사회화 전략이 아동의 정서·행동 조절 및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Rothenberg, Weinstein, Dandes & Jent, 2019). 이처럼 부모-자녀 간 긍정적·친화적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모교육 및 학교 상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한 적극적 개입도 필요한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및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

성별에 따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및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약 2배 정도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Li & Oh, 2017)인데,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조모형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학교급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오인수(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괴롭힘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괴롭힘 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에 의한 설명력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적대감이나 무관심과 같은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를 지각할 때, 공격성이 더 높게 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게 반응되고, 이러한 경험에서 느낀 수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사이버 괴롭힘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상담 개입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만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은 우월성과 힘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억압될 때 공격성이 표출되기 때문에(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로부터 복종할 것을 강요받는 경험은 남학생의 공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격성의 표출 공간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 집단과는 다르게 여학생 집단이 지각한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홍봉선, 2018). 이에 따른 관심으로 자아탄력성(홍봉선, 2018), 역기능적 충동성과 우울(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등이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매개변수로 관여하여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 즉,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개인내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정소희(2016)에 의하면,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강압적 태도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 교육·상담적 개입을 위해서는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와 한귀례(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로 과잉간섭, 비일관성이 확인된 반면에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부모양육태도는 과잉간섭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과 불명확한 기준의 훈육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인해 공격성이 더 높게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인터넷과 전자 기기의 높은 보급률과 학교폭력, 비행의 저연령화(백문숙, 장석진, 2017; 최두진 외, 20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서도 사이버폭력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나 비행 친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이 새로운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정민, 조윤오, 2016). 같은 맥락에서 서봉연(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아존중감과 놀이목적의 컴퓨터 이용이 사이버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중학교 3학년은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비행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성장 및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임에 따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양상에도 연령별·학교급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간 관계 및 이러한 관계에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발달단계별 변인 간 차이를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현상을 조명하였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 유형에 따라 개인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에는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이수경, 오인수, 2012; 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Chen & 오인수, 2018),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참여자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참여자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으로 다양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참여자 중 주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과 빠른 파급력 등의 특징을 지닌 사이버폭력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수의 주변인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 참여자인 주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제기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임에 따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경옥, 조춘범, 김정화 (2018).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23-42. doi:10.34244/fy.2018.15.1.23
- 고수연, 배성만 (2018).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부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03-224. doi:10.21509/kjys.2018.09.25.9.203
- 김경호, 차은진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중등생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학교급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27-54.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숙향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642-651. doi:10.5392/JKCA.2018.18.02.642
- 김신아, 방은혜, 한윤선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doi:10.5392/JKCA.2017.17.05.018
- 김은정, 유형근, 남순임 (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31(2), 179-198. doi:10.14333/KJTE.2015.31.2.179
- 김지윤, 강현아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39-52. doi:10.5392/JKCA.2017.17.08.039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doi:10.15703/kjc.15.6.201412.2379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류석상, 이주황, 한병호, 조정문, 배광덕, 이재인 (2016). **사이버폭력 유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NIA V-RER-C-16024).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초등학교생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요인 검사문항

-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27(4), 131-15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경애 (2018). **REBT를 활용한 정서교육 프로그램 2, 중·고등학생용**. 서울: 학지사.
- 박남이, 김춘경 (2013).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165-184.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백문숙, 장석진 (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3), 199-224. doi:10.21509/KJYS.2017.03.24.3.199
- 서봉언 (2017).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5(1), 77-99. doi:10.31352/jer.15.1.77
- 성은희, 안혜원, 윤명희 (2015).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8(1), 101-119.
- 송예름, 김영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와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527-554.
- 송진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29-58. doi:10.21509/KJYS.2016.07.23.7.29
- 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doi:10.16983/kjsp.2012.9.2.347
- 안성진, 이창호, 조윤오, 오인수, 김봉섭, 김경희, 이승하, 진달용, 임상수, 최숙영, 이원상, 이유미, 신나민 (2015).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파주: 교육과학사.
- 염서정, 제경자 (2018). 중학생의 일반긴장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5(1), 5-25.
- 오서진, 장현아, 최지윤, 신민섭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기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32-140. doi:10.5765/jkacap.2013.24.3.132
- 오인수 (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doi:10.15753/aje.2011.12.3.004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doi:10.15703/kjc.15.5.201410.1871
- 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I):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유석봉, 이완희 (2018).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과 사이버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4), 279-306.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수경, 오인수 (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doi:10.15753/aje.2012.13.2.006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총서 15-AA-0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은희, 이효자 (2014). 공감기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교육연구**, 1(2), 25-48.
- 이정민, 조운오 (2016). 청소년의 연령별 사이버불링 행동 요인 분석: 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4), 321-348. doi:10.16961/polips.2016.11.4.321
- 이지연, 박동필 (2015). 부모의 과보호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55-76. doi:10.35151/kyci.2015.23.1.003
- 이지혜, 강민주 (2019).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1), 69-83. doi:10.5723/kjcs.2019.40.1.69
- 정규형, 이상훈 (2015).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71-190. doi:10.19034/KAYW.2015.17.4.08
- 정소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doi:10.16975/kjfs.2016.52.010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준화 (2017).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담이 청소년 자녀-부모 간 애착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0(1), 1-32.
- 주연수 (2015). 분노와 공격성 조절을 위한 감정코칭. **신학과 실천**, 47, 313-347. doi:10.14387/jkspth.2015.47.313
- 진다슬, 손정락 (2011).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917-933. doi:10.15842/kjcp.2013.32.4.010
- 최영, 김현수 (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관계에서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6(3), 321-341.
- 최두진, 장주병, 이주황, 김옥진, 배광덕, 이재인, 이채린 (2018).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문정, 한영선 (2015).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91-420.
- 홍봉선 (2018).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81-117.
- Agnew, R.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es. In Cullen, F. T., Wright, J. P., & Blevins, K. R. (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pp. 121-123).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doi:10.4324/9781315130620-4
- Agnew, R. (2009). The contribution of "mainstream" theories to the explanation of female delinquency. In M. A. Zahn (Ed.), *The delinquent girl* (pp. 7-29).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doi:10.1002/9781118619179
- Chen, T., & Oh, I. (2018). Factors Influencing on Behaviors of Bystanders

- Witnessing Cyber bullying in the Type of Rumor Spreading: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Facto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4), 995-1019. doi:10.15753/aje.2018.12.19.4.995
- Gerard, J. M.,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youth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7), 951-975. doi:10.1177/0192513x05286020
- Holland, M. L., Malmberg, J., & Gimpel Peacock, G. (2017).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young children, second edition: Effective interventions in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years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walski, R. M., Limber, S. P., & McCord, A. (2019).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yberbullying: Prevalence and protective fac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5, 20-32. doi:10.1016/j.avb.2018.02.009
- Li, M., & Oh, I. (2017).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Aggression on School Violence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8(3), 23-46. doi:10.15854/jes.2017.09.48.3.23
- Nixon, C. L. (2014). Current perspectiv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adolescent health. *Adolescent Health, Medicine, & Therapeutics*, 5(1), 143-158. doi:10.2147/AHMT.S36456
- Peker, A. (2015). Analyzing The Risk Factors Predicting The Cyberbullying Statu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 and Science*, 40(181), 57-75. doi:10.15390/EB.2015.4412
- Rothenberg, W. A., Weinstein, A., Dandes, E. A., & Jent, J. F. (2019). Improving child emotion regulation: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therapy and emotion socialization strateg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3), 720-731. doi:10.1007/s10826-018-1302-2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analysis across genders

Ban, Jiyeon* · Oh, Insoo**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effect relations, and to test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s according to gender. To this end, SEM was analyzed among 2,541 participants and thi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by using the 1st year of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of the KCYPS 2018 conducted by the NYPI. First, aggression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iffered according to gende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negative nurturing attitudes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pecifically, aggression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the rejective, coercive and chaotic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male student group, while aggressiveness completely mediated the only effects of the rejective and chaotic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female student group.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trued that aggression did not mediate the effects of coerciv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 difference of inter-group path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effects of rejectiv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gg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as well a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cyberbullying perpetration, aggression, mediating effect, multiple-group analysis, KCYPS 2018

투고일: 2019. 12. 7, 심사일: 2019. 12. 20, 심사완료일: 2020. 1. 15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insoo@ewha.ac.kr